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학기	2026년 1학기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RWTH Aachen University		
학 번	2023-16919	이 름	양서연
소 속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본인은 서울대학교 국제처 주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국제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학생 안내, 프로그램 홍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2026년 8월 29일
작 성 자	양서연

I. 교환 파견 동기

3년간의 학교생활을 이어오면서 익숙한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 공부와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만큼, 졸업하기 전에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평소 졸업 이후의 진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자주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것이 실제로 저와 잘 맞을지 궁금했습니다. 단순한 여행으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한 학기 동안 현지에서 직접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제가 파견된 학교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아헨(Aachen)에 위치한 아헨공과대학교(RWTH Aachen University)입니다. 공학 분야로 잘 알려진 대학인 만큼 공학 관련 전공과 수업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며, 캠퍼스와 연구시설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아헨이라는 도시 자체가 대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헨은 독일 서쪽 끝에 위치하여 벨기에 및 네덜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도시는 아니지만 RWTH를 비롯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위치해 있어 학생과 연구자의 비중이 높고, 생활에 필요한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모여 있어 국제적인 분위기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뿐만 아니라 기숙사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국적의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며, 제가 생활한 기숙사 층에도 터키, 헝가리, 이집트, 인도,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독일에 있는 도시임에도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는 독일에서 생활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독일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학생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생활한 기숙사 층에도 독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독일어를 사용할 기회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생활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독일어 실력을 향상시

키는 것이 목표라면 언어교환이나 현지인과 교류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독일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비자였습니다. 저는 12월 6일에 비자를 신청하였고, 1월 26일에 비자 인터뷰를 진행한 뒤 2월 3일에 비자를 수령하였습니다. 신청부터 인터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파견이 확정되면 가능한 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학기 시작 전에는 교환학생과 유학생들의 비자 신청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예약 일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숙사

아헨에서 교환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기숙사에는 크게 General Housing과 Quota Room이 있습니다. General Housing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는 방식이고, Quota Room은 교환학생에게 별도로 배정된 자리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11월에 General Housing을 신청하였으나, 매달 신청을 연장해야 한다는 점을 놓쳐 12월에 다시 신청해야 했고, 결국 기숙사를 제안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2월 4일에 Rütcher Straße 121에 위치한 TvK 기숙사의 Quota Room을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하여 3월 18일에 입주하였습니다.

기숙사는 교환학생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거주했던 기숙사는 같은 층의 학생들과 주방을 공유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요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질 기회가 많았고,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보낸 시간은 교환학생 생활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데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기숙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일찍 General Housing을 신청하고, 신청 후에도 매달 연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RWTH에서는 수업 신청과 시험 신청이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한국 대학의 수강신청 방식과 달라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관심 있는 과목의 수업을 처음부터 너무 적게 신청하기보다는, 듣고 싶은 과목을 최대한 신청한 후 실제 수업을 들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 계속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중심으로 시험을 신청하면 됩니다.

시험 신청 역시 일정 기간 내에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응시할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라면 우선 신청해 놓고 추후 자신의 일정과 학업 상황에 맞추어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수업을 들었더라도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수강과목 설명

Rail Vehicle Vibration Dynamics

철도 차량의 진동과 동역학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RWTH에서 가장 오래된 과목 중 하나인 만큼 오랜 기간 축적된 체계적인 수업 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공 내용을 어렵지 않게 따라가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Automated Driving

수강한 4가지 과목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과목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Perception, Prediction, Planning, Control, Actuator, V2X, Simulation, Safety Assurance 등 다양한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루며,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분야를 폭넓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시험은 Dynexit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종이 시험이어서 계산 문제가 비교적 많았지만, 2023년부터 Dynexite를 이용한 시험으로 변경되면서 개념을 묻는 문제의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과거 기출문제의 계산 문제만 연습하기보다는 강의 전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gitalisation and AI in Process Automation

Digitalisation과 AI가 Process Automation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 역시 Dynexite를 이용하여 시험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느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다소 힘들었습니다.

Fundamentals of Business Management Process

제가 수강한 과목 중 유일하게 과제가 있었던 과목입니다. 공학 과목들과는 다른 분야의 내용을 접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시험 전에 기출문제를 제공받았고, 실제 시험 역시 기출 문제와 비슷한 형태로 출제되어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픈북 시험이었기 때문에 자료를 잘 정리해 두고 문제 유형을 미리 파악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V. 생활

1. 현지 물가 수준

독일은 외식비가 비교적 높은 반면 마트에서 구입하는 식료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외식을 자주 하기보다는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요리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하는 것 자체가 교환학생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층에 사는 기숙사 친구들과 종종 함께 요리해 먹었습니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만큼 서로의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요리하며 보낸 시간이 교환학생 생활에서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2. 교통

tuition fee를 내면 semester ticket을 받기 때문에 4월~9월까지의 독일 전역과 네덜란드 근교에서 ICE, IC와 같은 고속 열차를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월 교통권인 Deutschland ticket을 산다면 이 교통권은 구독제이기 때문에 3월 교통권을 산 후 4월 교통권을 취소할 때 3월 중순 전에 취소해야 합니다. Bahn Bonus라는 교통 할인권도 구매하였는데,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와 같이 멀리 ICE 고속열차로 이동할 때 큰 할인을 받았습니다.

3. 학교 및 여가 생활

제가 수강한 강의들은 대부분 별도의 출석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의를 매번 직접 듣기보다는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 강의 기간에는 혼자 공부하거나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의 학교생활과 비교했을 때 스스로 학업 일정을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전공 수업 외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필라테스와 펜싱을 수강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안내에는 독일어로 진행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필라테스는 독일어로 진행되었지만, 동작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 참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펜싱의 경우 첫 시간에 독일어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한 뒤 영어를 함께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독일어에 자신이 없더라도 관심 있는 스포츠가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인 여가 활동으로는 러닝을 자주 했습니다. 기숙사 근처에 Lousberg라는 언덕이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종종 이곳에서 달렸습니다. 특히 7월 1일에는 STAWAG에서 주관하는 Lousberglauf에도 참가했습니다. 평소 혼자 달리던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제 러닝 대회에 참가한 경험은 교환학생 기간 중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Ⅵ.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교환학생을 지원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제가 해외에서도 장기간 생활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마친 지금은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물론, 한 학기 동안 독일에서 생활하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각 나라가 저에게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으로 잠시 방문하는 것과 실제로 한곳에 머물며 일상을 보내는 것은 다르다는 점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생각하는 데 좋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기간에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쉽게 해보지 못했을 선택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제가 하고 싶은 공부와 활동을 선택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하면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해외 생활이나 졸업 이후의 선택지가 생각보다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에는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될지 정확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를 마친 후에는 앞으로의 진로나 거주지를 생각할 때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생활하는 것 역시 현실적인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뚜렷한 목표가 없더라도 평소 해외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자신의 선택지를 넓혀 보고 싶다면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